

# 지역 상생 · 새로운 도시 랜드마크 만든다

### 자광, 옛 대한방직 부지서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기공 비전페스타' 성황리 개최

(취재) (회장 전은수)은 11일 옛 대한 방직 부지에서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기공 비전페스타'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전주를 대표할 미래관광·문화·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향한 첫 공식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기공 비전페스타는 단순한 사업 시작을 알리는 자리를 넘어,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철학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민간 주도의 책임 있는 도시 개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주요 인사와 각계 관계자, 주민, 사업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은 관광·문화·상업·주거·휴식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로, 전주 도시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상징적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전주를 찾는 매년 수천만명의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을 통해 전주를 '버무르는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에는 총 3,536세대 규모의 명품 주상복합아파트(지상 49층, 10개동)를 비롯해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전과 철학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민간 주도의 책임 있는 도시 개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주요 인사와 각계 관계자, 주민, 사업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은 관광·문화·상업·주거·휴식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로, 전주 도시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상징적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전주를 찾는 매년 수천만명의 관광객

과 토론회 형식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 사례를 통해 전주 전망타워가 지향하는 미래상과 국제적 경쟁력을 제시했다.

이날 페스타에서 전은수 회장은 기공식의 의미를 강조하며, 타워복합개발사업이 갖는 상징성과 민간 개발의 책임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전 회장은 "오늘의 기공은 단순한 착공을 넘어, 전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다음 세대에 어떤 도시를 남길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출발점"이라며 "민간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전주가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랜드마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또 전주가 지난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언급하며, 복합개발사업이 미래관광과 도시 경쟁력을 더해 국내를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전주의 새로운 상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

업의 노력뿐 아니라 행정과 지역사회, 시민과의 신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전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임을 강조했다.

이번 페스타는 참여자 중심의 행사 구성으로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비전 영상과 발표를 통해 전주 전망타워가 만들어갈 미래 모습을 공유했으며, 행사 말미에는 전원이 함께 '다시 뛰는, 전주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마음에 새기며 사업 성공에 대한 열연과 전주 대변력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자광은 행사에서 복합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국 최고의 시설을 구축할 계획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단계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전망타워가 전주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운영과 콘텐츠 경쟁력 확보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전 세계 정부 연합기구로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을 가장 잘한 도시로 인정받았다.

시는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기후 행동 협의체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지공)' 이행을 위한 2025년도 CDP(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ICLEI 트랙 보고 결과 최고등급 도시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상식은 이날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2026년 ICLEI 한국사무소(지표 한국사무국) 정기회의에서 진행됐다.

지공(GCoM)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전 세계 144개국 1만3,800여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지방정부 연합으로, 시는 이번 평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부문 등 2개 부문 6개 분야 항목의 이행 평가 기준을 모두 준수해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최고등급 선정을 통해 시는 △수송부문 친환경 자동차(수소·전기차 등) 보급 확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기후재난(폭염·한파·가뭄·홍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추진 등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정책들을 꾸준히 이행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 온실가스감축 · 기후 위기 적응 빛났다

### 전주시, 세계 최대 지방정부 연합기구 평가 최고등급 도시 선정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전 세계 정부 연합기구로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을 가장 잘한 도시로 인정받았다.

시는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기후 행동 협의체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지공)' 이행을 위한 2025년도 CDP(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ICLEI 트랙 보고 결과 최고등급 도시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상식은 이날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2026년 ICLEI 한국사무소(지표 한국사무국) 정기회의에서 진행됐다.

지공(GCoM)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전 세계 144개국 1만3,800여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지방정부 연합으로, 시는 이번 평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부문 등 2개 부문 6개 분야 항목의 이행 평가 기준을 모두 준수해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최고등급 선정을 통해 시는 △수송부문 친환경 자동차(수소·전기차 등) 보급 확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기후재난(폭염·한파·가뭄·홍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추진 등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정책들을 꾸준히 이행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가져

전주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재난안전, 도로·교통, 화재·산불, 의료·방역, 종합상황실 등 안전관리 분야별 관계부서장이 참석해 분야별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 안전상황실 운영을 통한 연휴 기간 비상대응체계 유지 △도로·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 취약시설 특별점검 △구석길 증가에 대비한 교통상황실 운영 및 상습 정체 구간 안전관리 △화재·산불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강화 △응급환자 비상진료 및 감염병 대응체계 유지 등 분야별 주요 재난안전 대책이 보고됐다.



아울러 시는 연휴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 간 역할 분담과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5일간의 설 연휴기간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의회, 설 명절 앞두고 소외 이웃 위한 백미 전달

전주시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

11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김원주 운영위원장, 박산전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 이웃을 위한 10kg 백미 30포를 전북동주민센터에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주민센터는 이날 기탁받은 쌀을 지역 내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



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 '시민과 함께 만드는 크린 전주! 그린 전주!'

### 전주시, 자원순환·녹지분야 4대 전략 7대 핵심사업 제시



### 전주시의회, 초록정원 관리사들과 간담회 가져

전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전주시 초록정원관리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원문화도시 전주를 위한 협력체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관우 의장과 (사)더 숲 이선희 사무국장, 초록정원관리사 17기 김영숙 대표가 참석해 공공정원 조성 확대, 초록정원관리사 역량강화, 시민 주도 정원 문화 확산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초록정원관리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주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초록정원관리사 여러분의 열정이 정원문화도시 전주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정원이 시민의 삶 속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전주시가 올해를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과 함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11일 자원순환녹지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크린 전주! 그린 전주!'를 비전으로 한 자원순환·녹지분야 4대 전략과 7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4대 전략은 △효율적인 자원 선순환 2.0 체계 구축 △체계적인 청소시스템을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초록정원도시 구현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속 힐링공간 조성이다.

먼저 시는 올해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 체계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자원순환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하고, 자원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폐기물처리 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폐기물처리과정과 자원순환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 견학을 교육청 및 시민단체와 함께 협업해



전주시는 11일 자원순환녹지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크린 전주! 그린 전주!'를 비전으로 한 자원순환·녹지분야 4대 전략과 7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운영하고, 재활용센터 '다시봄'에서는 재활용보다 상위 개념인 재활용(업사이클)에 대한 교육과 체험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시는 올해를 '회용품 줄이기'의 해로 정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함께 줄이기 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동시에 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 향상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일례로 매립이 완료된 기존 매립지의 폐기물을 다시 분리·선별한 뒤, 성상에 따라 일부를 소각 처리해 매립용량을 확보하는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외에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상영장조사를 추진해 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시설 운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시행 2년차를 맞은 권역수거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강화에 나선다.

취약지에는 환경관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민원 다발 구역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신속히 투입하는 등 빈틈없는 청소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